

중소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해오담 찾아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가 26일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행정에 나섰다. 이날 우 부지사는 흑삼을 이용한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유)해오담(대표 김봉식·전순이)의 사업현장을 찾았다. (유)해오담은 2만1,000여 평의 부지에서 직접 재배한 6년근 인삼을 이용 구증구포(한약재를 만들 때, 약초를

찌고 말리기를 아홉 번 거듭하는 전통) 방식으로 수제 흑삼을 제조해 흑삼 추출액, 흑삼젤, 흑삼스틱 등을 생산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이다. 흑삼은 일증일포를 거치는 홍삼보다 구증구포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항암효과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의 성분이 많아지게 된다. 김봉식 해오담 대표는 "성능이 우수한 흑삼 제품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지만 KGC인삼공사 등 대기업의 인지도

에 밀려 사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도내 전통식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지역경제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창업보육센터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 가져

전북도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전북 창업보육센터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전북 창업보육센터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도가 전북창업보육협회(회장 김한수)와 함께,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대응하고 전담 인력의 다각적 역량 강화와 보육 센터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입주기업에 양질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전북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전담 인력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최신 벤처투자 트렌드와 IR 제안서 작성 실무, ▲홍보 능력 배양, ▲B2B 보육기업 투자 성공사례 공유, ▲발견방안 협의를 위한 네트워크를 진행했다.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999년부터 우수 기술 창업자에게 사업 공간과 경영, 기술 지원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에 예

산을 지원해 기술창업 기업을 육성, 도내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71개 창업기업을 지원, 1,230명의 고용과 1,806억 원의 매출 성과를 거둬 도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창

업기업 성장의 산실이자 버팀목인 창업보육센터의 혁신성장을 위해선, 전담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환경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22년까지 도내 전역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완료 추진

전북도가 도내 노후 상수관로 2,500여km에 대한 정밀 조사를 오는 2022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타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출' 등의 원인에는 노후화된 상수관로가 지적된 바 있다. 통상의 상수관로는 매설돼있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이로 인해 수질사고 대응 및 관로 개선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에 4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후화된 관로 약 2,570km에 대한 관로 진단, 상수관로 현황분석,

관 상태를 평가해 노후 관로 교체 등 개량 방법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9개 시·군에 18억 원을 투자해 1,077km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8월 기준 754km의 조사를 완료했고, 연내 잔여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신규사업 대상인 순창군 지역을 마무리하면 도내 전역의 노후 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완료돼 향후 환경부에서 추진 예정인 '2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도는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

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상수도 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아울러, 유수를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4,953억, 2017~2024년(14개 시·군)), 선제적 수질관리를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938억, 2020~2022년(14개 시·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내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실시함으로써 급수 취약지역에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누수 절감으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여성 경쟁력 향상 최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하반기 사업운영 방향 발표



전북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간담회 모습.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에 센터장)는 26일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2021년도 하반기 역점사업과 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센터가 밝힌 밝힌 중점 추진 과제로는 ▲ESG경영 전환을 위한 인권경영 문화확산 ▲전북지역 젠더거버넌스 확산 ▲제10회 젠더문화축제 개최 ▲양성평등 전문강사 커뮤니티 활성화 ▲제2회 여성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 ▲코로나19 예방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등이다. 먼저 센터는 ESG경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SG경영의 필수 요건인 인권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센터는 기관 운영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총 10개 분야 121개 지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전북지역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여성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성인지 정책, 양성평등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제10회 젠더문화축제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센터는 취업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통한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방안모색'을 주제로 경력단절예방 활성화 포럼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철저한 방역체계도 지원한다. 센터는 안전하고 고객중심적 청사운영을 위해 주 1회 청사 소독, 전 강의실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소독제 비치, 영상 강의실을 통한 비대면 교육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에 센터장은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 급변하는 외부경쟁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내실있는 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며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구직자 대상 면접비 최대 9만원 지원

도내 소재 기업 · 기관 취업 희망 도민 누구나 가능

전북도와 전북일자리센터는 도내 기업과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면접비 지원사업'은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의욕을 고취시켜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면접비는 교통비, 식비 등 실비에 대

해 1인당 3만 원 범위내, 연간 3회까지 최대 9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도내 소재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가능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활성화된 AI면접, 화상면접 등 비대면 면접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 및 문의는 전북일자리센터 누리집이나 전화(1577-0365)를 활용하


면 된다. 도는 내년 면접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업의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에게 면접비 지원으로 힘을 보탬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도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 개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전북학연구센터가 27일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다시 보는 후백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후백제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2021년도 전북학연구

센터 학술지원사업의 기획논문으로 공모된 후백제 연구물 4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북도는 후백제의 왕도 및 주요 근거지로, 그동안 관심이 저조했던 후백제의 연구 및 발굴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학술대회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의 '후백제의 역사성과 후백제문화권 설정'을 시작으로, 차인국 조선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의 '후백제 고고학

의 연구현황과 과제', 허인욱 한남대 교수의 '후백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와 김성배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후백제 견훤정권의 선승 정책'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이재운 전주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진정한 국립재주박물관 연구실장, 조인성 경희대 교수, 이정빈 충북대 교수, 최홍선 국립익산박물관장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필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